

〈특집 : 만당 김상현 교수의 학문세계와 그 계승〉

한국 근대 불교교육 담론과 불교전문학교의 설립*

김 성 연 **

〈목차〉

- I. 머리말
- II. 개혁론에 담긴 불교교육 패러다임
- III. 일제의 교육정책과 불교학교의 설립
- IV. 불교전문학교로의 승격과 위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불교개혁 담론과 불교학교의 설립을 통해 불교교육의 목표와 실현과정을 살펴 본 논문이다. 근대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는 1906년 명진학교로부터 1910년대 불교사범학교·불교고등강숙·불교중앙학림, 1920~30년대 불교전수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 1940년대 혜화전문학교로 발전하였고, 오늘날 동국대학교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불교계 최고의 전문학교를 표방했으며, '인재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교육목표와 학교 경영은 일찍이 주장된 불교개혁론의 패러다임 변화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권상로와 한용운은 공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K학술혁신연구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1-KDA-1250007).

** 동국대학교 K학술혁신연구소 연구초빙교수

통적으로 '사범(師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개혁론에서 주장한 인재양성의 대상은 '승려'에 한정되었고, 실제로 당시 학교들은 승려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1920년대 이후로는 이영재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의 대상이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되었다. 불교전수학교 이후로는 입학자격을 승려로 한정하지 않고,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라면 누구든 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승가 중심의 불교교육 패러다임이 교단 사업의 확장과 불교문화의 사회 확산을 계기로 인재 양성의 외연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불교학교는 식민지 당국의 교육정책 속에서 일정한 규제와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1910년대까지는 '각종학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에 따라 졸업생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사회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불교교단은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전문학교로의 승격은 전통의 교학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술의 대상'으로서 근대 학문분과 체계로 불교학을 교육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결과였다.

□ 주제어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 각종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 사립학교규칙, 불교개혁론, 권상로, 한용운

I. 머리말

전통적으로 불교교육은 강원에서의 이력과정을 말한다. 강원교육은 조선시대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의 단계가 정착되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한국 사회는 서구화·근대화를 지향하며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불교도 근대종교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교단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강원교육이 승려만을 대상으로 불교 경전과 주석서를 교수하는 방식이었다면, 새로 경영하는 근대학교는 승려와 재가자를 포함하여 흔히 말하는 보통학문과 서구로부터 역수입된 (근대)불교학을 교수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었다. 이것은 전통적 불교교육의 의미가 근대성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전통 강원교육 방식이 폐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강원교육은 오늘날까지도 계승·유지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교단을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 신·구 조화의 교육방식으로 배출된 불교 인재들이 근대 교단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불교교단이 구축되면서 주력했던 사업은 바로 교육 분야, 즉 학교 경영이었다. 식민지기 불교계의 교육사업은 전국 본산의 협조와 경제적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교단의 1년 예산에서 교육분야(학교 경영)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훨씬 상회한다.¹⁾ 불교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승려에 대한 교육은 교단 운영의 주체를 양성하는 일이며, 불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대 불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으며, 근대적 변화양상이 무엇을 지향했고, 불교발전과 관련하여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근대불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남도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²⁾ 그는 근대 학교교육과 강원교육을 구분하고 승려

1) 김성연,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25쪽.

2) 남도영, 「근대불교의 교육활동」,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부, 1975; 「개

교육에 대한 변화와 학교설립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대에도 정낙찬(1995)·정혜정(1998)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고,³⁾ 이들도 기존 연구성과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존의 논조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순석(2003)·김광식(2003·2006)·김혜련(2006)·황인규(2006)·이기운(2008) 등은 주로 동국대학교의 전사(前史)인 명진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근대 학교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⁴⁾ 그리고 이승윤(2005)은 1910년대 사찰에서 운영한 보통학교를 분석하였고,⁵⁾ 김은영(2019)은 근현대 불교계가 운영한 중등학교의 설립양상과 1930년대 명성여자학교를 연구하였다.⁶⁾

화기의 사원교육제도, 『현대사학의 제문제』, 남계조좌호박사회갑기념논총, 1977; 「韓國寺院 教育制度(上)」, 『역사교육』 27, 역사교육연구회, 1980a; 「韓國寺院 教育制度(中)」, 『역사교육』 28, 역사교육연구회, 1980b; 「舊韓末의 明進學校」, 『역사학보』 90, 역사학회, 1981; 「僧伽教育의 歷史的 考察」, 『승가』 1,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 1984; 「傳統文化와 教育: 寺院教育을 중심으로」, 『教育論叢』 10,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3) 정낙찬, 「개화기 불교계의 근대교육 수용」, 『한국교육사학』 17,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95; 정혜정, 「일제하 승가교육의 근대화론」, 『승가교육』 2, 대한부교조계종교육원, 1998.
- 4)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 불교의 근대성」, 『사학연구』 71, 한국사학회, 2003;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김혜련, 「식민지 고등교육정책과 불교계 근대고등교육기관의 위상-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황인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개교와 학풍」,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6; 이기운, 「근대기 불교계의 30본산 교육체제 정비와 인재양성-유점사 동국경원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이기운, 「근대기 僧伽의 교육체제 변혁과 자주화운동」, 『불교학보』 48,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
- 5)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청람사학회, 2005.
- 6) 김은영,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특성과 과제: 대한불교조계종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8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9; 「명성여자학교의 설립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들이 발표되었지만, 불교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할 주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불교학교의 운영이 식민지 교육정책 하에서 어떤 관계 법령들의 규제를 받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불교학교의 설립과정 속에서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기 학교운영의 성격을 이해하고, 불교계가 지향했던 '전문학교'로의 승격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는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그에 앞서 시기별 불교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불교전문학교의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불교계가 지향했던 불교교육의 목표와 성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개혁론에 담긴 불교교육 패러다임

1910년대 대표적인 불교개혁론은 한용운(韓龍雲)의 『조선불교유신론』(이하 『유신론』)과 권상로(權相老)의 「조선불교개혁론」(이하 「개혁론」)이 있다. 『유신론』은 1913년 불교서관(佛敎書館)에서 단행본 형태로 간행되었고, 「개혁론」은 1912~1913년에 기관지 『조선불교월보』에 12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오늘날 확인되는 불교계 출판물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된 불교개혁론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불교교육의 문제 인식과 함께 당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초기 자료에 해당한다. 이들 개혁론에는 불교교육 뿐만 아니라 교단 운영의 큰 틀에서 제 분

과 운영(1931~1945)],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야의 구태(舊態)를 개혁하고자 하는 주의·주장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단연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다. 교단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운영 주체인 승려를 양성하는 일인 만큼 중요하게 인식했을 것이다. 더욱이 ‘종교’라는 범주에서 경쟁하는 기독교와 일본 불교 제 종파의 학교 운영은 인재 양성에서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던 조선 불교계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권상로와 한용운은 공통적으로 ‘사범(師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권상로는 기존 강원에서 강사들이 누려온 특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사집(四集) 몇 권만 배워 성취하여도 모든 것을 통달한 학자로 예우하고, 대교(大敎) 몇 과목만 외워도 거벽종장(巨壁宗匠)으로 추존하여 마치 제2의 부처가 세상에 나온 것처럼 섬기니, 이에 얽치 없는 무리가 몇 줄의 글을 읽는 것으로 잘난 체하다가 어느 시기에 스승으로 추대를 받고는 부끄럽게도 스승 되기를 허락하여 학문과 덕망이 높은 이들을 육보임에도 사람들은 감히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니, 조선불교계의 패권은 강사들만이 누려온 특권이였다.⁷⁾

권상로는 이처럼 강원 강사들의 자질을 직접 문제삼으며 교리에 힘쓰고 공부하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을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자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완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사상과 예의와 신행부터 먼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층 더 주의하여 배우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인격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불교의 미래가 빛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신식 학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승려를 양성하는 강원 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하며 올바

7) 퇴경생, 「조선불교개혁론(속)」, 『조선불교월보』 18, 48쪽.

른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는 현안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한용운 또한 사범학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권상로가 강원교육의 범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쳤다면, 한용운은 보통학을 겸비한 신식 사범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는 승려 학인들이 보통학을 원수같이 보고 배우지 않고 있으며, 불교 교과서와 가르치는 절차가 모두 적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15~40세까지 승려 가운데 재주와 덕이 약간 있는 자를 모두 가려서 배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보통학, 사범학, 불교학을 화합 가감해서 적절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사실 위 두 개혁론이 발표되었던 1912~1913년에는 비록 휴교상태였지만 경성에 불교사범학교가 있었다. 불교사범학교는 1906년 설립된 명진학교를 이어서 교명을 바꾸어 1910년에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 당시 이렇게 사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점도 ‘사범’에 대한 현실 인식을 강조하였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입학자격을 보면, ‘승려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별과(別科)는 18세 이상의 사교과를 졸업한 자, 본과(本科)는 19세 이상의 대교과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⁹⁾ 즉 당시 불교계가 설립한 최고 수준의 신식 학교는 승려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공식적으로 학칙에서 입학 자격에 승려라는 신분이 사라지는 것은 1928년 불교전수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1910년대까지 불교교육 담론과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는 ‘승려’의 양성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8) 한용운 저, 이원섭 옮김, 『조선불교유신론』, 운주사, 2007, 42~44쪽.

9) 『私立佛敎師範學校敎典』, 『동국대학교 백년사 I』, 동국대학교, 2006, 85쪽 인용 참고.

그러나 1920년대부터는 개혁론에서도 인재 양성의 범주가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이영재(李英宰)의 「조선불교혁신론」(이하 「혁신론」)이 있다. 「혁신론」은 『조선일보』에 19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연재된 기사이다.¹⁰⁾ 이영재는 주소(註疏)나 사기(私記)만 독송하는 강원제도는 무기력한 학인을 양성한다며,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주장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식 교육기관은 일정한 교육방침이 없고 경영방법과 내용 및 설비 등도 불완전하므로, 조직적인 교육을 위해 총섭원(총무원)에 학무부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¹¹⁾

무엇보다 1910년대와는 다르게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교계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는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의 자제를 교육해야 하며, 언제나 포교적 관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는 일반 국민의 교육 보급을 목표로 하고, 고등교육은 교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정하였다. 이때 대학과 대학원을 부설하여 종교와 철학을 중심으로 법률·경제·교육·문에 등의 보조과목을 가미하여 종학(宗學)의 입장에서 실력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학교교육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사회 교화와 불교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포교사업과의 호응까지 이끌어냈다. 그래서 일요학교, 소년소녀학교, 노동야학, 유치원, 교양강습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을 시행하고 지역문화의 선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²⁾

승려를 양성하기 위한 승가(僧伽) 중심의 불교교육 패러다임이 교단 사업의 확장 운영과 불교문화의 사회 확산에 의해 재가불자까지 포함하는

10) 총 27회 중 전반부 7회분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11) 이영재, 「조선불교혁신론」, 『조선일보』, 1922.12.15.

12) 이영재, 앞의 글, 1922.12.16.

교육체제로 확대·전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1920년대부터 외국(일본)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본격적으로 귀국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단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받게 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¹³⁾ 이영재 본인도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혁신론」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 받은 대학 교육으로부터 몸소 체험한 불교교육 시스템과 일반 사회에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조선의 불교교육을 혁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이다. 또 유학생들의 귀국과 함께 3.1운동 이후 중앙학림 학생들의 시국에 대한 인식 변화와 조선불교청년회 등의 활동 등이 중앙의 교단 운영과 어우러지며 교육 혹은 학교의 변화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이후로는 승가 전통의 교육 양상만 생각하던 지난날의 불교교육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다가 당국의 교육정책 하에서 ‘전문학교’로의 승격에 교단 전체가 동의하고 움직임을 보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불교교육 담론이 형성되고 교단 차원에서 전문학교로의 승격이 시도되는 한편에서는 다시 전문강원이 강조되는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사실 각 지방 본산에서 운영하던 강원은 1915년에 교단이 전문학교 수준의 중앙학림을 세우려 할 때 중등학교 수준의 지방학림으로 전환되거나 폐교되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강학 전통이 하루 아침에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는 일이다. 변화를 부르짖는 개혁의 흐름 속에서 위기에 처한 강원은 한국불교의 전통 계승과 승려 양성이라는 필요성에서 학인들을 중심으로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

13) 승려들의 일본 유학은 19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대 전반기에 유학한 학생 수는 약 14명 정도가 확인되고, 후반기에도 십 수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먼저 귀국해서 자리를 잡은 승려로 이훈성, 김정해, 이지광이 불교잡지에 소개되고 있는데, 1918년의 일이다. 1920년대부터는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이경순,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승가교육』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8, 259쪽).

자 했다. 그에 따라 1928년 조선불교학인대회가 개최되었고, 전통 강원
의 학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1930년대 전반기까
지 교단 집행부는 강원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
다.¹⁴⁾ 학인대회를 통해 결성된 학인연맹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 내전연
구과(內典研究科)의 설치를 건의하였다.¹⁵⁾ 그래서 이듬해(1929) 전조선
승려대회를 통해 종회(宗會)가 탄생하자, 종회의 결의로 불교연구원이 개
운사 대원암에 설치된다.¹⁶⁾ 개운사 불교연구원은 이후 꾸준히 운영되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3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평의원회 회
록에 교단 중앙기구의 보조기관으로서 ‘강사 1인, 학인 17인, 대교과 12인,
사교 4인, 사집 1인’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⁷⁾

한편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제1회 전체대회가 1932년에 개최되었
다.¹⁸⁾ 이때 종회에 건의하여 강원제도 개정심의회가 조직되었고,¹⁹⁾ 논의
끝에 1933년 제5회 종회에서 다음과 같이 불교교육 체계가 결의되었다.²⁰⁾

14) 조선불교학인대회와 이후 강원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김광식의 연구가 참고된다(김
광식, 「조선불교학인대회 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1930
년대 강원제도 개선문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조선불교 학인
대회록」과 불교개혁,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등).

15)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7회 평의원총회 회록」(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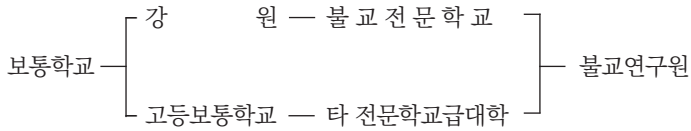
16) 「불교연구생 모집광고」, 『불교』 59, 1929.5. 개운사 대원암에는 이미 1926년에 박한
영이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고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불교연구원은 바로 이 불
교전문강원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영섭, 「영호(石顛) 정호(漢永)와 중앙불교
전문학교-한국의 ‘윌리엄스 칼리지’ 혹은 ‘엠퍼스트 칼리지」-」, 『한국불교학』 70, 한
국불교학회, 2014, 43~48쪽).

17)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11회 평의원총회 회록」(1933)

18) 김성연,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성립과 활동」, 『사학연구』 132, 한국사학회, 2018,
445쪽.

19) 「조선불교청년총동맹 제1회정기전체대회록」(1932)

20) 「조선불교선교양종 제5회 종회록」(1933)



이는 강원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불교교육의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진된 안으로, 강원교육을 위해서는 보통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강원에서의 승려교육에 앞서 보통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²¹⁾ 식민지 교육정책의 등급을 생각한다면, 강원은 보통학교와 불교전문학교 사이에 있고 고등보통학교와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으니 중등교육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배치된 불교연구원은 강원 및 전문학교의 졸업자가 진학할 수 있는 최고학부로 설정된 셈이다. 1930년대 초반 이와 같은 논의는 전문강원의 교육체계를 복구하여 승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던 결의였다. 이후 불교연구원까지 이르는 교육체계가 정식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평의원 회록에 ‘보조기관’ 정도로 기록되어 있듯이, 단지 불교학의 정수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기관(연구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로부터 강원 혹은 고등보통학교를 거쳐 불교전문학교에까지 이르는 교육과정은 점차 정립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1930년을 전후하여 강원교육 문제가 불어져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교단 교육사업의 핵심은 전문학교의 경영에 있었다는 점

21) 허영호, 「조선불교교육제도의 결합과 개선」, 『불교』 103, 1933.1. 허영호는 기존 강원도의 비능률적인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현대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제시한 교육 단계는 “불교강학원-불교전문학교-불교연구원”인데, 불교강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간의 보통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다. 교단 1년 예산의 상당수가 신식학교의 운영에 투입되었고, 대체로 강원을 졸업한 승려라야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를 증명한다. 이것은 불교전문학교가 당시 승려를 포함한 불교도들이 진학할 수 있는 최고 학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불교계는 식민지 사립학교의 최고 학부였던 전문학교의 운영을 통해 시대에 적합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

Ⅲ. 일제의 교육정책과 불교학교의 설립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며 제2조에서 조선에서의 교육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러한 문구는 이후 3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교육령에서는 빠졌지만, 조선인을 충량한 일본국민으로 동화시키고자 한 강령은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이었다.²²⁾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조선의 교육은 크게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뉘며, 제2차 개정부터는 사범교육도 포함되었다.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대학’ 교육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에서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제1차 「조선교육령」 제3조)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일본보다 열등한 학제(學制)를 마련했던 것이었다.²³⁾ 어쨌든 이 법령에 의하면 식민지기 교육정책에서 사립학교의 최

22) 이러한 기초의 연장선에서 식민통치의 변천에 따라 내지 연장주의에 입각한 「내지 준거(內地準據)의 교육(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교육(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황국신민화」 교육(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등으로 교육방침의 성격도 변화하였다(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149쪽).

23) 이해영,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

고 학부는 전문학교였다.²⁴⁾

불교계 최초의 근대 학교는 1906년 경성에 설립된 명진학교(明進學校)이다. 바로 이 학교가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전신으로서, 해방되기까지 불교사범학교(佛敎師範學校)·불교고등강숙(佛敎高等講塾)·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불교전수학교(佛敎專修學校)·중앙불교전문학교(中央佛敎專門學校)·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 등으로 여러 차례 교명이 변경되고 학제상으로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불교계에서 최고 학부라 자부했던 이 일련의 학교들은 식민지 고등교육 정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

불교계는 이 학교들을 세울 때 모두 전문학교 수준을 표방했다. 하지만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은 것은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 때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각종학교’ 수준에 머물러야 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립학교규칙」을 제정해 관공립에 준하는 통제를 가했는데, 이에 불응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각종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격식을 낮추었다.²⁵⁾ 각종학교는 정규학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학교였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학하려는 학생은 줄어들었고 결국 학교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불교학교는 명진학교가 세워진 1906년부터 전문학교로 승격된 1930년까

발원, 1997, 15쪽.

24) 일제는 3.1운동 이후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관립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22년에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부터 “대학교육 및 그 예비교육은 대학령에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일본의 ‘대학령’을 적용하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관제」를 공포하여 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대학은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 하나만 설립되었고, 그나마 재학생도 일본인이 대다수였다(정재철, 앞의 책, 1985, 350쪽, 393~394쪽 참고).

25) 이혜영, 앞의 책, 1997, 98쪽.

지 약 24년 동안을 대부분 각종학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 불교학교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식민지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의 사립학교는 일제가 제정한 1908년 「사립학교령」, 1911년 「사립학교규칙」,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을 통해 그 설립과 운영에 규제를 받았다. 1908년과 1911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학교 설립 및 운영 사항에 대한 인가와 보고의 대상이 학부대신에서 조선총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기에는 학교의 목적·명칭·위치, 학칙(수업연한·교과목·교과과정·학생 정원·입학자격·수업료 및 입학금 등), 교지 교사의 평면도 및 그 소유자, 일년 수지예산, 유지 방법(기본재산 또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첨부), 설립자 및 학교장, 교원의 성명과 이력서 등을 조선총독에게 인가를 받고, 이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보고를 해야만 했다.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는 일부 내용의 수정과 추가가 이루어진다. 달라진 점만 간추려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규칙(1911)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
제3조 학교장 변경 - 조선총독의 인가	제3조 설립자 변경 - 조선총독의 인가 학교장 및 교원 변경 - 도장관의 인가 제3조의 2 학교를 설립 유지하는데 충분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제6조 학칙 규정 (수업연한, 교과목, 교과과정, 학생수, 수업료 등등)	제6조의 2 추가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실업학교규칙 또는 전문학교규칙에 준해 그것을 정한다. ... (각 학교의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교과과정은 덧붙일 수 없다.
제10조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때는 그 도서의 명칭, 책수, 사용학년, 저역자 및 발행자, 발행연월일 등을 조선총독에게 보고	제10조의 2 추가 사립학교의 <u>교원은 국어에 통달하고</u> , 단지 외 국어, 조선어 및 한문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자에 한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 사립학교장은 매년 5월 말 현재 직원 이름, 담당학과목, 학년별 재적자 수 및 출석자 수, 교과용 도서 배당표 및 회계 상황을 다음 달 중으로 조선총독에게 보고	제16조 조선총독에게 <u>보고하는 내용에 '졸업자의 상황'을 추가</u>
	부칙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체조 이외를 가르치는 교원에 관해서는 1920년 3월 31일까지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본령 시행 당시 인가를 받아 존재하는 사립학교는 1925년 3월 31일까지 제3조의 2,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표 1〉 1915년 사립학교규칙의 개정 내용 요약

수정 및 추가된 내용만을 요약하면,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교과과정의 제한, ③ 국어(=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교원의 채용, ④ 총독에게 졸업자의 상황 보고 등이다. 추가된 내용들도 총독부가 사립학교의 운영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재단법인의 경우, 〈부칙〉을 보면 기존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1925년 3월 31일까지 유예해주고 있다. 불교계는 1910년대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1922년 12월에 가서야 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 조선불교교무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1915년의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교과과정을 제한한 것이었다. 이는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전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종교교육이 공적인 체제 속에서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제 6조의 2에 제시한 각종 학교들의 규칙에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과과정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었다.

사실 이 내용은 1899년 일본 정부가 기독교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교교육을 금지시켰던 「문부성 훈령 12호」의 사례가 모델이

된 것이었다.²⁶⁾ 이때 기독교 학교들은 종교교육을 포기하고 정식 학교로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사립학교 인가를 포기하고 종교교육을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만약 종교교육을 선택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각종학교로 격하되어 상급학교로의 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1915년 이후 조선에서도 그대로 발생했던 것이다.²⁷⁾ 「개정사립학교규칙」은 자칫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수많은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의 설립, 교과과정, 교과서, 교직원 자격 등을 총독부가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식민지 교육체제내로 포섭하려 했던 법적 장치였다.²⁸⁾

실제로 「개정사립학교규칙」의 공포 이후 종교교육을 택한 기독교학교들은 각종학교가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았다. 불교학교도 전문학교로 인가되기 전까지는 각종학교에 머물렀었는데, 그럼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은 일단 그 수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국 30본산의 출자로 학교가 운영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도 30본산의 추천에 의해 강원 출신의 승려들이 모집되어 일정 정원을 충당할 수 있었고, 수업료 또한 각 본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불교학교는 각종학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보다는 학교등급으로 인해 졸업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학교는 종교교육 금지와 관련해서 사립학교의 인가 문제가 논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의 종교교육

26) 이명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8 참고.

27) 이 당시 교육정책과 종교학교(기독교학교)의 문제는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8, 한국종교학회, 2005; 정선이, 「191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승실과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9, 교육사학회, 2009 참고.

28) 정선이, 앞의 논문, 2009, 89쪽.

금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컸다. 일본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불교가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 학교가 주로 승려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⁹⁾ 이에 반해 기독교 학교들은 일반 자제의 보통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우려했던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불교학교는 전문학교로 공식 인가되기 전까지 설립목적이 ‘승려의 양성’에 있었다.

또 사립학교규칙에서 다루는 종교교육 금지 문제는 ‘전문학교’의 경우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제1차 「조선교육령」의 제25조에는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다.³⁰⁾ 이는 1903년 일본에서 공포된 「전문학교령」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행정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주목한 연구가 있는데, 「전문학교령」이 특별히 종교전문학교를 상정하지 않았고, 전문학교 역할은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종교전문학교를 인가했다는 것은 “종교란 학술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념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념이 그대로 1917년에 공포한 「대학령」으로 계승되어, 근대 일본의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과 전문학교에서는 종교가 학술의 대상으로서 연구되고 교수되는 것으로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한다.³¹⁾ 이럴 경우, 사립 전문학교를 종교교육의 문제로 규제할 필요는 없게 된다. 당시 조선 불교계의 관건은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중등 수준의

29) 이명실, 앞의 논문, 2008, 57쪽.

30) 전문학교가 그 목적에 따라서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곳이라는 내용은 1940년에 개정되는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1940.4.1)의 제1조에도 반영되었다.

31) 江島尚俊, 「近代高等教育行政における宗教」, 『近代佛教』 23, 日本近代佛敎史研究會, 2016, 10~12쪽 참고. 불교의 경우 대장경의 편찬, 성전의 작성, 불교사전의 간행 등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불교계 전문학교의 설립·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학교가 많았던 기독교계가 치했던 난관과는 별개로, 식민지 고등교육정책에서 요구되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도 사립학교규칙이 개정된 같은 해 전문학교를 통제하기 위한 「전문학교규칙」³²⁾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대에, 관립으로는 경성법학전문학교(1916)·경성의학전문학교(1916)·경성공업전문학교(1916)·수원농림학교(1918) 등 4학교, 사립으로는 연희전문학교(1917)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1917) 2곳이 인가되어, 총 6개의 학교가 전문학교로 인가되었다. 「개정사립학교규칙」에 학교를 설립·유지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나면서, 사립 전문학교 재단법인을 신청한 기독교계 두 학교만이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았다.³³⁾ 반면 불교계는 1920년대에 가서야 재단법인을 설립했고, 뒤늦은 1930년에 전문학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보면, 식민지기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사립 전문학교의 인가는 재단법인이라는 충분한 재정 기반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해방 전까지 설립·운영된 전문학교 수는 2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³⁴⁾ 이렇게 대학은커녕 전문학교조차 많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설립에 충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재단법인’의 설치라는 문턱을 만들고 종교교육 금지나 여러 자격요건의 제한을 걸어서 조선인의 고등교육 자체를 억제하고자 했던 일제의 교육정책도 큰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교육정책 속에서 불교학교가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기까

32) 「전문학교규칙」은 1922년에 폐지되었고, 대신 조선총독부법령 제21호로 「공립사립전문학교규정」으로 이어졌다. 이 규정은 1940년과 1943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다.

33) 정재철, 앞의 책, 1985, 336쪽.

34) 정재철, 앞의 책, 1985, 459~460쪽 〈표 6-54〉 참고. 이에 의하면 1943년 당시 사립 전문학교는 11곳, 관공립 전문학교는 9곳이 있었다.

지 어떠한 노력과 내용이 있었는지 간단히 들여다 보자. 불교계 첫 학교인 명진학교는 일본 정토종의 영향으로 조직된 불교연구회에서 홍월초(洪月初), 이보담(李寶潭) 등이 중심이 되어 신식학교 개설을 내부(內部)에 청원 하면서 시작되었다.³⁵⁾ 처음에는 보통학교 수준에서 서울 근교 사찰의 청년 승려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학력수준이 높은 지원자가 많아지자 곧바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불교연구회는 전국 수사찰에 13세에서 30세까지 대교과 이상을 수료한 승려를 모집한다는 통문(通文)을 발송하였다.³⁶⁾ 이런 과정을 거쳐 명진학교는 1906년 5월 8일에 정식 개교한다.

학교설립을 추진했던 불교연구회는 12개조로 이루어진 학칙을 제정했는데, 제1조에 “본교는 승려에게 필요한 종승(宗乘) 여승(餘乘) 및 신학문을 교수하여 그 지덕(智德)을 높이고 포교전도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³⁷⁾ 이와 같은 내용의 설립 목적은 명진학교에 이어 설립되는 불교사범학교, 불교고등강숙, 중앙학림에서도 그대로 표방되었다. 다시 말해, 초창기 불교학교에 대한 교계의 기대는 ‘근대적 교육방법에 의한 승려의 교육’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모든 학교들은 학칙에 “승려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대교과 이상을 수료한 승려를 학생의 입학자격으로 설정하고 있다.³⁸⁾ 전통적인 강원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대교과 이상 수의과에 해당하는 수준을 지닌

35)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335~336쪽.

36) 「발문제도수사통문(發文諸道首寺通文)」, 『조선불교통사』 하, 신문관, 1918, 936~937쪽.

37)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1』, 동국대학교, 2006, 69쪽.

38) 이들 학교들은 대체로 본과와 예과(혹은 별과)를 두고 있는데, 본과의 경우 대교과 이상(19세 이상), 예과의 경우 사교과 이상(18세 이상) 수료한 승려들을 모집하였다(〈표 2〉 참고).

학생들이 모인 학교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학림 졸업자인 임석진(林錫珍)의 회고를 보면, 적어도 1910년대 중앙학림까지는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임석진은 중앙학림이 “꼭 재래식 강당의 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개량 강당”인 셈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당시 모집된 자들은 “거의 각 강당의 재래식 학과를 졸업한 강사자격을 갖춘 노학생들”로서, 모두 상당한 실력을 지녔었다고 한다.³⁹⁾ 그 또한 24세에 입학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하면, 1910년대는 불교학교가 근대학교 체제로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였다고 이해된다.

당시 각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 및 입학자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과(수업연한)	입학자격	교과목
명진학교 (1906)	본과?(2년) / 보조과 (단기과정 부설(1년))	대교과 / 보조과: 사교과	법계관문, 삼부경, 범망경, 천태사교의, 능가경, 사분율, 화엄경, 염송및설화, 열반경, 전등록, 종경록, 종교학및종교사, 포교법, 법제대요, 철학및철학사, 산술, 역사및지리, 이과, 주산, 측량, 경제대요, 농업초보, 도화·수공, 일어, 체조
불교 사범학교 (1910)	본과(3년) / 별과(1년)	“승려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본과: 대교과, 19세이상 / 별과: 사교과, 18세 이상	[본과] 수신, 불교사학(종교사, 선문오종강요, 천태사교의, 화엄경, 사분율, 기신론, 전등록, 염송및설화), 교육(교육의 원리, 철학및철학사, 심리논리대요, 포교법및학교관리, 실지수업), 국어, 한문, 일어, 보조과(역사, 지리, 이과, 수학, 농업, 측량학, 도화·수공, 창가, 체조, 참선및근행) [별과] 수신, 불교(화엄경, 전등록, 염송및설화), 국어, 한문, 일어, 역사·지리, 보조과(수학, 이과, 농업, 측량학, 포교법, 도화·수공)

39) 임석진, 「중앙학림시대」, 『동대신문』 326호, 1966.6.13. 2면.

불교 고등강숙 (1914)		대교과/사교과	(명진학교, 불교사범학교과 비슷)
불교 중앙학립 (1915)	본과(3년) / 예과(1년)	“승려로서 신체가 건강 하고 의지가 굳으며 품 행이 방정한 자” 본과: 지방학립 졸업 또는 예과수료, 19세 이상 예과: 사교과, 18세 이상	[본과] 수신, 宗乘(선문오종강 요, 화엄경, 능가경, 참선및근 행, 염송및설화, 전등록), 餘乘 (천태사교의, 범망경, 종경록, 불조통재, 사분율, 열반경), 종 교학 및 철학(조선종교사, 종교 학, 윤리학, 동양불교사 附각종 강요, 철학및철학사일반), 포교 법및법제, 국어, 한문 [예과] 수신, 중승(법계관문, 참 선및근행), 여승(백법론, 팔식구 거및인명론, 유식론), 국어, 한 문, 보조과(이과, 수학, 지리, 역 사 등의 개요)

〈표 2〉 식민지 초기 불교학교의 학제

이로써 교육제도는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로 이어지는 10년 혹은 11년 과정의 강원교육을 수료한 후, 신학문과 함께 전문적인 불교 연구로 나아가는 교육체계가 성립되었다. 개혁론에서 강조한 승려들의 “보통학” 교육, 즉 신학문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불교학교를 통해 비로소 체계화 되어 갔다. 하지만 1910년대 불교학교들에서는 강원 출신의 승려들이 모여 기본적으로 기숙생활을 했고, 강원과 비슷한 일상을 소화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규칙적인 승가 공동체이기도 했다.⁴⁰⁾

한편 위 학교들은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고자 당국에 지속적으로 신청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다만 불교사범학교의 경우는 식민지 직전에 출범하면서 중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교단내 원종과 임제종의 대립 및 혼란 속에서 불교사범학교는 제대로 된 수업을 진행

40)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6, 72쪽.

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국권이 상실되자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 등에 의해 당국의 교육정책 속에 편입되었고, 각종학교 지위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다시 전문학교 설립 논의가 있기까지 무기한 휴교 상태에 있었던 듯하다.

국권 상실 후 사찰령이 시행되고 30본산 체제로 불교교단이 정리되자 30본산주지회의, 연합사무소 등의 중앙기구가 정비되었다.⁴¹⁾ 교단의 주요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최고학부로서 전문학교를 설립하자는 여론에 힘입어 1914년 불교고등강숙에 이어⁴²⁾, 1915년에 불교중앙학림이 세워졌다. 주지하듯이 1915년에는 「개정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이 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불교계는 전문학교 설립과 인가를 위해 새롭게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먼저 지방학림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각 지역 강원의 명칭을 지방학림으로 변경한 것인데, 중등 정도의 교육기관을 표방하였다. 그 학칙 강령을 보면,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동일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승려에게 꼭 필요한 학과를 가르쳐서 …… 중앙학림에 들어갈 예비 연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고학부인 중앙학림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했다.⁴³⁾ 그리고 중앙학림의 입학자격은 <표 2>를 보면, 지방학림 졸업자 또는 사교과를 마치고 예과를 수료한 자로 되어 있다. 이로써 명진학교 설립 이후 각 본산에서 운영해오던 보통학교와 연계해서, 형식상 보통학교(4년)-지방학림(3년)-중앙학림(3년)으로 이어지는 초등-중등-고등교육의 단계가 완성

41)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중앙기구의 조직구성과 재정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43~59쪽.

42) 불교고등강숙은 젊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혁신운동이 전개되며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교되었다.

43) 「조선불교지방학림학칙강령」, 『조선불교통사』 하, 1918, 1229쪽.

되었다.⁴⁴⁾ 이는 식민지 교육정책하에서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 불교계가 구축한 일련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전문학교의 인가 여부는 불교학교의 위상 뿐만 아니라 졸업자들의 사회진출에도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 운영주체로서는 지속적으로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10년대 불교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립학교들이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는 사립학교들에서,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종교학교에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자들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총독부의 의도였다고 보기도 한다. 「개정 사립학교규칙」에 ‘전문학교는 충분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제3조 2항)도 실제로 전문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데에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해서이기도 했지만, 당국의 그러한 의도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에 분말사 사찰과 토지재산을 가지고 있던 불교계는 충분한 출자금 마련이 가능했겠지만, 당시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불교행정이 성숙되지 않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앙학림도 시스템까지 정비하며 전문학교를 만들고자 했지만, 공식적인 인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전문학교는 1920년대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설립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30년에 가서야 중앙불교전문학교로서 인가를 받게 된다.

44) 지방학림-중앙학림은 형식적으로 중등-고등의 단계를 표방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을 훗날 중앙불전의 교장을 역임한 박한영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학림의 체제는 중학 정도 이상을 표준하고 지방 각 본사 내에다 지방학림은 보통학교 이상을 표준하여 지방학림과를 마친 생도만으로 중앙학림에 입학할 자격이 유하도록 규정한 것인데,……”(석전사문, 「고목춘」, 『일광』 2, 1929.9, 37~38쪽).

Ⅳ. 불교전문학교로의 승격과 위상

중앙학림은 당국으로부터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통학교-지방학림-중앙학림의 교육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전문학교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학교 졸업장이 있고 없고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또 교단 차원에서도 전문학교 졸업 이상의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기도 했다. 1920년대 이후 일본 유학생의 비중이 급증했던 것도 불교를 전공하는 인재들이 국내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해외유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⁴⁵⁾

당시 불교학교에 동맹휴학 내지 휴교령이 술하게 내려졌던 가장 큰 이유도 전문학교로의 인가를 요청했던 학생들과 학교 당국 및 운영주체였던 교단 중앙기관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요청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맹휴학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1920년대 초반 30본산 연합사무소가 교무원과 총무원으로 나뉘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도 학교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졌고, 결국 재단법인의 설립과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학림은 장기 휴교 상태가 되었다.⁴⁶⁾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불교계는 1924년에 전국 본산으로부터 60만원의 자본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통합되면서 학교사업을 재추진할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⁴⁷⁾ 교무원은 중앙학림의 전문학교 승격을 위해 학교의 교지를 확보하고 교사를 신축하는 등 그 요건을

45) 이경순, 앞의 논문, 1998, 257쪽.

46)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6, 113~121쪽.

47) 김성연, 앞의 논문, 2010 참고.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총독부는 중앙학림이 3.1운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 학교설립 목적이 불교계에 필요한 포교사 양성이므로 굳이 전문학교 인가가 필요없다는 점, 재단법인 출자액 60만원으로는 인가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문학교보다 낮은 '전수학교'로 승인하였다.⁴⁸⁾ 이렇게 불교전수학교는 1928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무원은 곧바로 다시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위해 재단 출자액을 40만원 증자하는 계획을 추진했고,⁴⁹⁾ 결국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이하 '중앙불전')로 승격할 수 있었다.

	학과(수업연한)	입학자격	교과목
불교 전수학교 (1928)	본과(3년) 예과 선과 특과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불교학 외에, 철학, 윤리학, 불교미술, 서양철학, 지나철학사, 교육학개론, 교수법, 법제, 경제, 사회학개론, 조선문학사, 일본어, 일본문학, 영어, 체조 등
중앙불교 전문학교 (1930)	본과(3년) 특과(3년) 선과(3년)-승려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전문학교 입학자 검정규정에 의한 시험 검정에 합격한 자/전문학교입 학자 검정규정에 의한 지정학 교를 졸업한 자	불교학(조계종지, 화엄종지, 불교개론, 각종 강요, 구사학, 인명학, 유식학, 불교서사학, 불교미술), 불교사(인도지나불교사, 조선불교사, 일본불교사), 종교학및종교사(조선종교사, 종교학개론), 윤리학및윤리사(국민도덕, 윤리학개론, 동양윤리사, 서양윤리사), 철학및철학사(논리학, 심리학, 자연과학개론, 철학개론, 지나철학사, 인도철학사, 서양철학사), 교육학및교육사(교육학개론, 교육사및교수법), 법제및경제, 사회학(사회학개론, 사회문제및사회사업), 한문및조선문학, 국어및국문학, 영어, 음악, 체조

48)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06, 124~125쪽.

49) 김성연, 앞의 논문, 2010, 26쪽.

<p>혜화 전문학교 (1940)</p>	<p>불교과 홍아과</p>	<p>중학교를 졸업한 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에 합격한 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 규정에 의해 일반 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한 무시험검정의 지정을 받은 자</p>	<p>[불교과] 수신, 일본학, 국어및한문, 국사, 동양사, 불교학, 불교사, 철학개론, 동양윤리학, 인도철학, 종교학, 심리및논리, 윤리학, 교육학, 교육사, 응용사회학, 사회학, 법학통론및경제원론, 지나어, 영어, 체조무도및교련 [홍아과] 수신, 일본학, 국어및한문, 국사, 동양사, 불교대의, 불교윤리, 지나어, 영어, 동양윤리학, 교육학, 교육사, 법학통론, 경제원론, 지나만몽지리, 동양경제사정, 지나경제사, 체조무도및교련</p>
-------------------------------	--------------------	---	---

〈표 3〉 식민지기 불교전문학교의 학제

불교전수학교는 비록 전문학교로 인가가 되진 않았지만, 교지의 확보, 교사의 신축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위 〈표 3〉에서 보듯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전문학교 수준을 충분히 준수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 중앙학림까지만 해도 입학대상자가 승려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전수학교부터는 승려 여부를 떠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라는 단서만 명시하여 일반 재가자의 입학도 허용했다는 점에서 불교학교의 의미에 변화를 맞았다.

중앙불전은 1930년 4월 7일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그리고 1931년 8월 17일 문부성에 고등학교 고등과 및 대학 예과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듬해 5월 31일에 승인되었다.⁵⁰⁾ 이에 따라 중앙불전 졸업생들은 고등시험에 응시할 때 예비시험을 면제받는 특전을 얻게 되었다. 이는 비로소 대학 예과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일련의 노력들이 보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50) 『중앙불교전문학교일람』, 1933

학칙 제1조는 “조선교육령에 의해 불교학 및 동양문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지난 중앙학림까지 ‘인재(승려) 양성’을 목적으로 밝혔던 것을 생각하면, 승가 중심의 학교교육을 벗어난 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학과는 본과(本科), 특과(特科), 선과(選科) 각 3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과의 경우, 중앙불전의 입학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본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정시험(국어, 수학, 동양사, 한문)을 통해 선발하였다. 그리고 선과는 승려로서 본교 학과과정 중 불교에 관한 과목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입학할 수 있었다. 별도의 시험은 없었던 듯하며 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받고, 학업을 끝나치면 수업증서를 수여했다. 1937년 『중앙불교전문학교일람』의 졸업자 명단에 선과 졸업자가 1~3회는 보이지 않으며, 4~6회에 각기 2~3명씩의 명단만 있는 걸 보면, 입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중등학교 수준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 검정시험을 통과한 자와 승려들이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37년부터는 학과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학칙에서 제1장 총칙 부분에 학과 명칭이 사라지고, 제8장과 9장에 각기 별과(別科)와 연구과(研究科)가 새로 기입되고 있다.⁵¹⁾ 별과는 앞선 특과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면 명칭만 바뀐 듯하다. 대신 선과는 폐지되고 연구과가 신설되었다. 연구과는 본교 졸업생 중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학할 수 있었다. 재학기간은 2년이며 본교에 설치된 학과목 중 선택하여 전공하고, 과정을 마치면 학교장이 그 성적을 고사한 후 전공증서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즉 오늘날의 대학원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⁵²⁾

51) 『중앙불교전문학교일람』, 1937

52) 1937년 이전에 학칙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전후사정은 파악되지 않는다. 대신 1935년 1월 교우회에서 발간한 『일광』 5호에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제 개

중앙불전은 개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운영을 책임진 재단법인의 출자금 증자 문제로 인해 한때 위기를 겪기도 했다.⁵³⁾ 당시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은 중앙불전과 함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운영했었는데, 재단 출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자 학교 경영권 포기과 관련한 논의가 일어났었다. 심지어 오랜 염원 끝에 승격된 중앙불전의 폐지론까지 등장하기도 했지만, 중앙불전 출신자를 비롯한 교계 중진들의 지지선언이 이어지며 중앙불전은 혜화전문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혜화전문학교는 1940년에 불교계의 총본산 건설운동으로 조선불교조계종이 창종되는 배경하에서 중앙불전이 학칙개정을 신청하여 인가됨으로써 교명이 변경된 것이다. 학교의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1942년에 재단법인 조계학원으로 변경되었고, 조계학원은 총본사 태고사에 부속되어 혜화전문학교의 운영만을 담당하게 되었다.⁵⁴⁾ 혜화전문은 설립목적으로 ‘국체관념의 함양과 총량하고 능력있는 황국신민을 연성함’을 설정하고 있다. 교장 또한 일본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에 이어 와타나베 신지(渡邊信治)가 역임했으며, 교수 및 강사진도 일본인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더라도 대부분 창씨개명한 이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의 표방과 학교 인사의 변화는 일본의 전시체제와 식민지 교육정책이 종교 전문학교에까지 끼치고 있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선]이라는 글과 함께 변경 학칙이 게재되고 있다. 그 제2조에 “본교에 불교과(佛敎科) 및 문과(文科)를 두고 수업연한은 각 3년으로 하며 별도로 별과, 선과 및 연구과를 둠”이라고 되어 있다. 1937년 『중앙불교전문학교일람』의 학칙과 비교했을 때, 본과가 불교과와 문과로 나뉘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53) 1930년대 재단법인 교무원의 학교경영과 관련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김광식, 「1930년대 불교계의 중헌 실행문제」,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 김성연, 앞의 글, 2010 등에서 다루고 있다.

54) 「재단법인 기부행위 변경인가 신청의 건」, 『종교법인사원관계서류』(CJ0004899), 1942.5.16.

있다.

학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학을 전공하는 불교과와 '대륙 사정에 관한 고등의 학술을 교수'하는 흥아과(興亞科)가 있었다. 두 과 모두 3년 과정으로서, 각과 학년당 50명씩 전체 300명이 정원이었다. 중앙 불전이 전체 150명 정원임을 감안하면 2배 정도 규모가 커진 것이다.

현재 1941년까지의 중앙불전과 혜화전문학교의 입학생 및 졸업자 수는 각 학교 『일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학년		입학생 수	입학자 평균연령	졸업자 수
1930		33	23	
1931		28	21	24
1932		24	21	13
1933		35	22	14
1934		33	22	16
1935		53	26	16
1936		57	24	21
1937		56	24	15
1938		49	23	20
1939		52	27	40
1940	불교과	58	28	36
	흥아과	58	27	
1941	불교과	51	23	31
	흥아과	49	22	
계		636	평균 23.8세	246

<표 4> 식민지기 불교전문학교의 입학·졸업자 현황

1941년까지 불교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636명이며, 졸업생 수는 246명으로 집계된다. 1940년까지의 입학생(536명) 수와 1941년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 비율을 계산하면, 약 45.9%가 입학하여 학업

을 완료하였다. 타 학교의 사정까지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비교·평가는 어렵지만, 식민지 하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졸업생이 배출됐다고 생각한다. 1941년 이후 해방 전까지를 감안하면 고등교육을 마친 승려 및 불교도가 거의 300명을 헤아릴 것으로 여겨지는데, 뒤늦게 종단을 구축한 불교계로서는 상당한 성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입학자 평균연령을 보면 23.8세였는데, 다음 글을 보면 학생 중에 나이가 많고 학력이 꽤 높았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들은 말로 학생이옵지 모조리 중학 정도를 曾前에 거쳐서 그 중에 實 사회에 投込하여 다소간 경험자도 있사옵고, 渡世術에 능한 수완자도 있사옵고, 세상에 나가서 쓰고 단맛에 시달린 자도 있어오며, 講伯을 지낸 자도 있사오며, 교육계에 종사자도 한둘이 아니옵고, 大教를 마친 자와 중학교 졸업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령들은 30이 훨씬 넘고 40이 다된 자도 있습니다.⁵⁵⁾

명진학교 때부터 강원외대 교과 출신들이 진학했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불교전문학교에도 강원출신의 승려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교전문학교 체제를 통해 전통적인 교과의 수업과 근대 불교학 및 신학문의 수업을 이수한 불교청년들은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55) 문기석, 「교문을 나서면서-31본산 종무소 제사에게 고하나다」, 『일광』 3, 1931. 3, 70쪽.

V.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 불교교육 담론과 식민지기 교육정책 하에서 불교전문학교의 운영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불교개혁론이 처음 등장한 1910년대는 ‘보통학을 배워야 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교육론의 핵심이었다. 이때 교육 및 인재 양성의 대상은 승려였다. 전통의 옷을 입고 있는 불교가 근대 종교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신식교육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인식이었다. 그에 따라 강원 교육보다는 신식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학교의 설립은 교단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1920년대 이후로는 불교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개념까지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순히 교육이라는 개념을 넘어 포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승려뿐만 아니라 재가자에 대한 교육과 불교문화의 사회 확산을 염두에 두고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체로 신식교육이 강조되는 분위기였지만, 한편에서는 한국불교와 승가 전통의 계승을 위해 전문강원을 복구하자는 주장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교교육 패러다임의 특성은 실제 불교학교의 운영에서도 잘 드러난다. 처음 명진학교가 설립되고 1910년대 중앙학림이 운영될 때까지 학교교육의 모집 대상은 승려였다. 특히 강원의 사교과 및 대교과 수료자를 대상으로 고학력의 학생을 선발했다는 점에서, 불교학교는 고등 수준의 전문학교를 지향했다. 이때 불교학교의 목적은 ‘포교전도의 인재양성’에 있었다. 종교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교단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를 사회 일반에 확산할 수 있는 포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문학교 시기인 1930-40년대 중앙불전과 혜화전문에서는 ‘불교학 및 동양문학에

대한 전문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내세워, 교육 실시라는 행위를 더 강조하였다. 입학 자격도 승려로 한정하지 않고, 중등 수준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일반인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칙에 있어서도 기존 승가 중심의 불교교육 개념을 확대하고, 불교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세우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불교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전적으로 식민지 교육정책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조선교육령」은 전반적으로 식민지 교육의 방향을 설정했으며, 「사립학교규칙」은 개별적(사립)으로 설립된 학교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고, 「전문학교규칙」은 식민지 조선인의 고등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였다. 불교학교는 이들 교육 법령의 규제 속에서 운영되었고, 궁극적으로 전문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전문학교는 식민지기 사립학교의 최고 학부였다. 따라서 전문학교로의 승격은 학교의 위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학교로서도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가 인가되기까지 전개되었던 불교학교들과 모든 교육활동은 전문학교 설립운동이었으며, 근대 불교교육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승려들 스스로 자각하면서 한국불교의 발전과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교단 차원의 교육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1.10. 투고 / 2023.12.11. 심사완료 / 2023.12.14. 게재확정)

[Abstract]

The Formation of Buddhist Education Discourse and Establishment of Buddhist Specialized School in Modern Korea

Kim, Seong-Yeon

This article explores the goals and realization process of Buddhist education through the Buddhist reform discourse and establishment of Buddhist schools in modern Korea.

Modern schools established by the Buddhist community continued to develop by changing their names to Myōngjin hakgyo(Myōngjin School, 明進學校) in 1906, Bulgyo sabeom hakgyo(Buddhist Teachers School, 佛教師範學校), Bulgyo kodŭng kangsuk(Buddhist Academy of Higher Education, 佛教高等講塾), and Bulgyo chungang hangnim(Buddhist Central Seminary, 佛教中央學林) in the 1910s, Bulgyo chōnsu hakgyo(Buddhist Specialists School, 佛教專修學校) and Chungang Bulgyo chōnmun hakgyo(Central Buddhist Specialized School, 中央佛教專門學校) in the 1920s and 30s, and Hyehwa chōnmun hakgyo(Hyehwa Specialized School, 惠化專門學校) in the 1940s. All of these Buddhist schools declared the level of “Specialized School(專門學校)” and aimed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These educational goals and school management can also be seen in the paradigm shift of Buddhist education reform theory. Kwon Sang-ro and Han Yong-un, representative reformers in the 1910s, bot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talent’. The target of talent

training claimed in the reform theory was limited to ‘monks’, and in fact, Buddhist schools in the 1910s aimed to cultivate monks. On the other hand, as can be seen from Lee Young-jae’s reform theory, since the 1920s, the targets of talent training include both monks and ordinary people. Until the 1910s, only monks were allowed to enter Buddhist schools, but after the Bulgyo chönsu hakgyo in the 1920s, all those who graduated from Secondary School(高等普通學校) were admitted. This means that the Buddhist education paradigm based on the monk society has shifted to expanding the scope of talent training through the expansion of Buddhist projects and the spread of Buddhist culture.

Buddhist schools were regulated by colonial education policies and had to overcome them. The Buddhist schools were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各種學校)’ by the colonial government until the 1910s. As a result, graduates were unable to go to higher schools and had difficulty in building a social career. Therefore, the Buddhist denomination established a foundation and tried to expand its assets to promote the Buddhist school to a “Specialized School,” and as a result, the Chungang Bulgyo chönmun hakgyo was approved by the colonial government in 1930. It can be said that the Buddhist Specialized School has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monk’s education system, recognized Buddhism as “a subject of scholarship”, and established a Buddhist education system as a branch of modern scholarship.

□ Keyword

Specialized School(專門學校), Secondary School(高等普通學校), miscellaneous

school(各種學校), Central Buddhist Specialized School(中央佛教專門學校), Rules of Private Schools, Buddhist reform theory, Kwon Sang-ro, Han Yong-un

[참고문헌]

<1차 자료>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신문관, 1918.
한용운 저, 이원섭 옮김, 『조선불교유신론』, 운주사, 2007.
권상로, 「조선불교개혁론」, 『조선불교월보』, 1912~1913
이영재, 「조선불교혁신론」, 『조선일보』, 1922.11.24.~12.30
『중앙불교전문학교일람(中央佛敎專門學校一覽)』
『혜화전문학교일람(惠化專門學校一覽)』
『불교』
『일광』

<저서 및 논문>

- 고영섭, 「영호(石顛) 정호(漢永)와 중앙불교전문학교-한국의 '일리엄스 칼리지' 혹은 '앰허스트 칼리지'-」, 『한국불교학』 70, 한국불교학회, 2014.
김광식, 「1930년대 강원제도 개선문제」,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김광식, 「명진학교의 건학정신과 근대 민족불교관의 형성」,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 불교의 근대성」, 『사학연구』 71, 한국사학회, 2003.
김성연,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자산 운영과 한계」, 『불교학연구』 27, 불교학연구회, 2010.
김성연,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성립과 활동」, 『사학연구』 132, 한국사학회, 2018.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중앙기구의 조직구성과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순석, 「통감부 시기 불교계의 명진학교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

- 구』 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김은영, 「근현대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특성과 과제: 대한불교조계종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87,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9.
- 김은영, 「명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1931~1945)」,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 김혜련, 「식민지 고등교육정책과 불교계 근대고등교육기관의 위상-중앙불교전문학교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6.
- 남도영, 「개화기의 사원교육제도」, 『현대사학의 제문제』, 남계조좌호박사회 갑기념논총, 1977.
- 남도영, 「舊韓末의 明進學校」, 『역사학보』 90, 역사학회, 1981.
- 남도영, 「근대불교의 교육활동」, 『한국불교사상사』, 원광대학교출판부, 1975.
- 남도영, 「僧伽教育의 歷史的 考察」, 『승가』 1, 중앙승가대학교 학생회, 1984.
- 남도영, 「傳統文化와 教育: 寺院教育을 중심으로」, 『教育論叢』 10,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남도영, 「韓國寺院 教育制度(上)」, 『역사교육』 27, 역사교육연구회, 1980a.
- 남도영, 「韓國寺院 教育制度(中)」, 『역사교육』 28, 역사교육연구회, 1980b.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조계종사 근현대편』, 조계종출판사, 2001.
- 동대백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백년사 1』, 동국대학교, 2006.
- 류성민, 「근대 이후 한국 사회변동과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문제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1,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 이경순,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승가교육』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8.
- 이기운, 「근대기 불교계의 30본산 교육체제 정비와 인재양성-유점사 동국

- 경원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20, 한국선학회, 2008.
- 이기운, 「근대기 僧伽의 교육체제 변혁과 자주화운동」, 『불교학보』 48,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
- 이명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 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8.
-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 학교의 설립과 운영」, 『청람사학』 11, 청람사학회, 2005.
-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8, 한국종교학회, 2005.
- 이혜영,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정낙찬, 「개화기 불교계의 근대교육 수용」, 『한국교육사학』 17,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95.
- 정선이, 「191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승실과 연희전문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19, 교육사학회, 2009.
- 정영희, 「한말 종교계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실학사상연구』 5·6합집, 무악실학회, 1995.
-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일지사, 1985.
- 정혜정, 「일제하 승가교육의 근대화론」, 『승가교육』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8.
- 中西直樹, 『日本近代の佛敎女子敎育』, 京都: 法藏館, 2000.
- 황인규,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개교와 학풍」,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6.